

各委員會委員長 新年設計

〈원고도착순〉

法規委員會

建築文化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關係法의 대폭적인 改定案을 마련...



委員長
金在佑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새해 人事를 드립니다.

85년 제11회 이사회에서 法規委員會 委員長으로 선임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미약한 힘이나마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努力할 것을 다짐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設計 工事監理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설계 감리는 造形藝術과 건축공학이 조화를 이루며 關係法規에 맞게 창작하는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藝術 文化人的 모임인 韓國藝總 산하에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의 단체가 있으며 여기에 건축도 포함되어 있음은 건축도 예술임이 분명하며, 우리들은 조상으로 부터 훌륭한 건축문화를 이어받은 것 또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및 건축대전 등을 통한 藝術人的 褒賞制度가 있으나 건축사 업무를 통하여 완성된 우수작품에 대한 褒賞制度가 建築關係法에 없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建築士法, 建築法의 罰則 란은 접어두고 建築士法 施行規則 별표 3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10cm 초과되었다고 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덜 심었다고 해서 위반건축으로 다스리며.....

위반건축을 하는 쪽은 건축사보다 建築主

와 施工者이며 위반건축에 대한 利得과 損失 또한 建築主와 施工者에 있음에도 왜 건축사만이 크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불이익(행정)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마땅히 건축주, 시공자에게도 不利益 處分이 並行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회원카드 賞罰 란을 살펴보면 賞의 란은 비어있고, 罰의 란만 가득차 있으니 수치스러울 뿐이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이는 건축사의 잘못이 아니라 건축사 업무를 바로 보지 못하는 눈 建築設計·監理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建築士 業務에 관계되는 모든 法的·制度的인 잘못에 있다고 보아 질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公正去來 委員會에서는 건축설계 업무를 價格競爭에 의한 入札 方法으로 정하려는 奇想天外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 건축사가 설 땅은 잃고 마는 것인지...

건축사에게 행정처분 등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건축사 업무를 價格競爭에 의한 入札 方法을 도입한다고 해서 違反建築物이 없어지고 우수한 건축물이 이루어 질 것인가?

건축사 업무는 작품으로서 경쟁하여야만 비로소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우수한 건축물이 이루어 질 것이다.

완성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建築主 設計監理者·施工者 등에 褒賞과 여러면으로 惠澤을 줌으로써 이들 모두가 협동으로 우수한 건물을 완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한 矜持를 가지므로 비로서 韓國 建築文化의 발전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1962년에 제정된 建築法, 1963년에 제정된 建築士法, 기타 관계법은 수차례 걸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개정되었을 뿐 오늘날 필요로 하는 건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축사는 건축사 본업무인 건축물의 設計·監理에 온 情熱을 기울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통하여 建築文化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建築法, 建築士法 其他 關係法의 대폭적인 改定

案을 마련하여 立法化 시킬 수 있는 기구가, 본 협회에 설치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弘報委員會

사회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새로운 성년된 소리가 온 누리에 펼쳐져야...



委員長
李文雨

우리 俗談에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린애가 자기의 의사표시 또는 욕구의 표시 방법이 울음 밖에 없어서 무조건 우니까 우선 젖부터 물려놓고 울음을 멈추게 하는데서 유발 되었나 보다. 또한 우는 아이의 욕구가 충족 되었기에 울음을 그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즘에도 우는 아이에게 무조건 젖을 줄까? 하고 반문 하여 본다.

人間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부터 울음을 운다 이는 자기의 표현이며 자기의 소재와 욕구 표시의 한 수단과 방법일 것이며 成人이 되어 가면서 교육을 통하여 말과 글을 배우고 이러한 매체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며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자기의 존재가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속칭 자가발전을 열렬히 하면서 빛을 내고 있다.

우리 건축사협회도 창립 20주년이 지나 이제 成人이 되었고 회원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확보 및 정착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84 년도 여름 서울지역에 홍수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건축사들이 각자 봉사 및 홍보요원이 되어 사회에 많은 봉사와 공헌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들의 지위향상과 우리 업무에 대한 많은 홍보가 되었으며 사회도 건축사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이름 찾기에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건축사 개개인이 홍보요원 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건축물을 많이 설계 및 감리하여 사회적으로 믿음을 받으며 성실하게 봉사할 때 좋은 홍보가 될 것이며 협회는 회원 개개인을 위한 협회보다도 전체 회원을 위한 협회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 자체도 전체 회원을 위한 사회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새로운 성년된 소리가 온 누리에 펼쳐져야 될 것이다.

研修委員會 (신설)

지식의 경쟁이야말로 우리의 건축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발전...

委員長
李 榮 一



진실로 하루를 새로울 수 있거든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자.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정함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마음가짐이

1년 365일간 새롭게 하고 일평생을 하루같이 새롭게 하자.

인생은 평생을 성장할 수 있다. 젊어서 다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려는 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이웃 일본인들의 1인당 1년간의 평균 독서량은 3,000페이지인데 대해 우리나라는 60페이지라고 한다. 다같이 그 결과를 생각하여 보자.

세계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공구가 개발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참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연간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달성하려고 다같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건축계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설계를 수주하고도 불안하고 겁이 나서 옛 방식과 지식으로, 앉아서 설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책을 보고, 을지로의 자재상들을 한번 돌아보고, 보다 값싸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견고한 새로운 자재가 개발되어 있으면 그러한 자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갖고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공법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공구가 개발되었으면 그것을 사용한 새로운 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자만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지식의 경쟁이야말로 우리의 건축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은 물론이요 주위로부터의 약간의 자극과 도움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다.

우리 건축사협회에서는 신년을 맞이하여 연수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1. 건축사법 30조에 의한 건축사보수교육
2. 보조사 및 보조원의 보수교육
3. 교육에 관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토의
4. 각종 건축교육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 등

이 중에서 3항은 국제위원회가, 4항은 건축위원회의 각 전문분과위원회가 주관하여 깊이있는 연구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옛 성현의 말씀 한 귀절을 되새겨 보면,

사물이 규명된 뒤에야 얹어 투철해지고, 얹어 투철해진 뒤에야 뜻이 성실하게 되어지고, 뜻이 성실하게 된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몸이 닦아지게 되고, 몸이 닦이고 난 뒤야 집안이 바로 잡히게 된다.


고 하였다. 모든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사물을 규명하여 앎을 투철히 하는데 있다는 말씀이다.

신년을 맞이하여 지식탐구에 다같이 노력하여 더욱 크게 성장하자.

倫理委員會

“社會에서 信賴받고 尊敬받는 建築士像을 定立하는 해”

委員長
林 在 植



丙寅年の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所望하시는 일이 모두 成就되는 한해가 되기를 祈願한다.

지난 乙丑年을 돌이켜 볼때 우리 협회로서는 어느해 보다도 뜻깊은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협회가 탄생한지 20돐을 맞는 成年協會로서 성장하였고 우리 모두의 수년내 숙원이었던 建築士會館이 비로소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갖어 오게 해주신 역대회장님과 선배회원님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 새삼 감사함을 금할길 없다.

무릇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면 그때마다 새로운 계획과 함께 다짐을 하게 된다.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굳혔던 성숙된 터전을 발판으로 하여 올해에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면에서 어른스럽고 용기있고 너그러움을 간직하는 자세를 갖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적지 않게 지탄과 제재를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것이 건축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들 수가 있다. 지난 3개년간에 걸쳐서 우리 동료 회원이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관계당국으로부터 行政的인 제재를 받은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쉽사리 그 수치를 열거키 부끄러울 程度로 많은 회원이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다행히도 연도별 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해를 거듭 할수록 점차로 비리계수가 감소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點에서는 꺾이나 희망적이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다.

이와같이 많은 회원이 건축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여러가지 사회적, 제도적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으나 그 원인과 실상을 타하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들 스스로의 자질과 품위에 문제점이 있음도 반성하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반성과 시련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丙寅年 새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에는 기필코 비리가 척결되어 “社會에서 信賴받고 尊敬받는 建築士像을 定立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한다.

끝으로 회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빈다.

編 纂 委 員 會

뜻을 함께 탐구하고 서로 供有하는 건축활동의 마당을 주관...



委員長
安 將 元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여러분의 健勝하심과 萬事亨通하시기를 祈願하면서 또한 우리 협회의 앞날에 無窮한 발전을 祈願합니다.

1986年은 한국의 建築文化와 협회의 활동 상황이 밝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또한 협회가 그 中樞의인 役割을 하게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한국 건축계는 大韓建築士協會를 위시하여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등 크게 3개단체로 나뉘어 建築分野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會員構成을 대략 살펴보면 약 5,000여명의 건축인이 3團體에서 중복가입 하여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건축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所屬團體 일에 참여하여 각기 專門誌를 만들고 각종 세미나 討論會 展示會 및 研究發表와 作品活動으로서 매년 바쁜 일과를 보낸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免許所持者인 우리 회원들의 창작活動分野, 學問이 주된 分野, 또한 建築大展을 중심으로 젊은 人材를 發掘하는 등

여러 分野에서 각기 독립된 建築團體에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종합적인 건축행위가 축적된 一線의 經驗을 중심으로한 건축과 건축인을 위하여는 3團體가 함께 가져보는 대간치는 없었으며 시도되 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발전되고 있는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內的인 充實과 대외적으로 발전되고 통일된 言語로 社會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 부터라도 서둘러 잘못된 점을 고쳐 시간과 돈과 人材를 아껴야겠다고 생각해 되는 것이다. 더우기 '86아시아게임을 맞이하는 丙寅年부터는 地球村의 여러곳에서 건축과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우리 협회가 발족된지 어언 20년 그간 훌륭한 會館을 마련했고 본 협회와 13개지부 그리고 수많은 分所를 설치하여 奉仕하는

制 度 委 員 會

年金복지제도를 협회차원에서 합리적이고 給一된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제도화...



委員長
申 貞 桓

새해를 맞이하니 지난해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맞이하는 것이 순리인것 같이 생각된다. 지난 해는 우리 협회가 성년의 기틀을 마련하느라 회관준공 20주년기념행사 등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하였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되며 그러다 보니 각 위원회의 연구활동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이 점을 반성하면서 지금까지의 해운 일들을 잘 정리하겠다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뜻도 되겠다.

제도위원회의 설치는 1984년 12월11일 제 12회 이사회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본위원회는 •연합회 연구위원회, •도서신고연구위원회, •복지후생연구위원회, •세무 연구위원회 등 4개 연구위원회를 두고

韓國 建築界의 최대의 組織으로 발전하고 본 협회에 8개 위원회와 그 傘下에 8개 분과위원회 및 5개 연구위원회 등 실로 다른 단체의 追從을 不許하는 예산과 기구를 갖추고 또한 훌륭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우리協會는 주어진 일의 처리도 重要하지만 建築界의 주인의식을 갖고 각분야의 축적된 지식과의 만남의場, 대화의場, 실천과 연구, 학문이 어우러져 의견을 모으는 광장을 마련하여 즐거이 그 참된 뜻을 함께 탐구하고 서로 供有하는 건축활동의 마당을 주관하여야 한다. 밀려오는 저 世界의 물결을 여유있는 마음으로 맞이 할 준비도 또한 이 기회에 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북녘땅에도 하루 속히 取復이 되어 民族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건축의 통일된 언어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기를 기리며 세계속의 한국의 건축이 찬란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建築人 여러분께 眞心으로 祈願한다.

기능으로는 본협회 발전과 운영업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연구 개발하게 되어

- 1. 각종제도및 운영개선을 위한연구
- 2. 협회업무개선을 위한 연구
- 3. 제도위원회의 각 위원회의 운영연구
-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지난해 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오던 각 위원회의 업무를 새해에도 계속하며 특히 정부시책에 의거, 1987년부터 部分的으로 地自制가 실시됨에 따라 행정체제의 변동에 발맞추어 연합회제도를 실현성있게 제도화하고, 도서신고의 심의강화, 복지후생 연구에서는 각 지부별로 복지회가 일관성 없이 임의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과는 별개로 전국회원이 年金복지제도를 협회차원에서 합리적이고 給一된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제도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본 연구위원회의 연구사업에 여러 회원님들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협조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建築委員長 신년설계와 각위원회별 사업계획은 2월호에 게재합니다)